

P11. 이혼후 비양육 부/모의 부모역할 참여

Divorced Noncustodial Parents' Involvement with Children

김 영 희^{1*}, 한경혜²

한경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¹,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²

Kim, Young-Hee · Han, Gyoung-Hae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1. 문제제기

이혼후 부모역할 및 자녀와의 관계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은 주로 이혼모가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관한 내용에 집중되어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부모역할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들어 서구에서는 이혼부부가 자녀양육에 함께 참여할 때 자녀가 이혼후에 더 잘 적응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양육부/모가 지각하는 부모역할 참여, 다시말하여, 자녀와의 접촉정도, 양육비 지원정도, 및 자녀관련 문제 의논정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한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비양육 부/모들이 더욱 부모역할에 개입하는지, 구체적으로 전배우자와의 갈등 및 자녀관계의 질이 부모역할 참여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의 수집은 이혼한 지 5년이내의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서 자녀 양육권이 없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92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2. 연구결과 및 해석

첫째, 이혼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대체로 자녀와의 접촉이 제한적이어서 응답자의 약 21%가 자녀와 전혀 접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양육 부/모와 자녀와의 접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연령, 자녀관계 만족도로 나타났다.

둘째, 비양육 부/모가 지원하는 자녀양육비 정도가 매우 미흡하여, 과반수 이상이 이혼당시 책정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셋째, 자녀양육비 지원여부를 결정짓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부모의 성, 자녀연령, 전배우자와의 갈등, 자녀관계 만족도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셋째, 비양육 부/모가 지각하는 전배우자와의 자녀관련 의논정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비양육 어머니보다는 비양육 아버지가, 경제상태를 나쁘게 지각할수록, 전배우자와의 갈등정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혼후 전배우자와 자녀관련 문제를 더 많이 의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비양육 부/모가 지각하는 다측면적인 부모역할과 관련변인을 탐색함으로써 이혼후 부모역할의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자료를 제공했다고 기대할 수 있다.